

사례명	입양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'화목한 가족 캠프'		
공모분야	적극행정	부서명	중앙_활동운영2부

BP(Best Practice)

- '20년 입양아동 학대(정인이 사건)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반영한 입양가족 대상 활동지원으로 입양 이후 가정 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지원

□ 추진배경/현황/필요성

○ 새롭게 가족이 된 부모-아동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

- (문제인식) 입양아동은 부모와 애착형성이 어렵고,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낳을 가능성이 높음. 입양아동학대사건 등 잇단 사회적 문제로 입양아동의 상실감·낙인감 등을 고려한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
- (관련현황) 입양가정 대상 지원은 주로 부모에게 맞춰진 양육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짐.(입양부모의 욕구나 특성에 부응하지 못함)

* 부모-자녀 동반 놀이 활동은 '아동의 부모님을 향한 의사소통 수준' 등 전반적인 영역이 상승하였고, 부모 역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을 향한 정서적 지지가 향상됨.

※ 참고문헌: 김외선, 「국내입양부모교육에 관한 방안 고찰」, 한국가정관리학회, 2016

- (추진근거) 가족구성원의 동반성장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

구 분	세부내용
관계법령	청소년기본법, 입양특례법, 아동복지법
국정과제	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(가족 다양성 포용)
정부정책	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(취약계층 선제적 발굴·대응)

□ 주요 내용

- (제도 확장) 입양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제공 영역확대
- '21년 사회배려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에 '입양가정 및 청소년' 포함

- (대상 발굴) 국내 최대 규모 입양기관 '한국입양홍보회' 협업(MOU)
 - 가족활동 지원의 파급력 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입양가정 모집
 - (맞춤 활동) 가족 화합 및 정서적 안정 지지를 위한 활동 개발·구성
 - 가족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(온라인+초청사업)
 -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'의사소통' 외 2종 신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* '21년 입양의 날(5.11) 맞이 '온라인 화목한 가족 홈캠프' 운영

구 분	온라인 가족활동(중앙)	초청형 가족활동	Kywa로 늘려 ON(5개원)
참여인원	51가족, 연579명	35가족, 연234명	110가족, 연4,524명
프로그램	의사소통, 위생안전, 공예	챌린지, 천체관측, 역사탐방	5개원 프로그램 12종

□ 기대 효과(신규서비스/국민편익제고/비용절감 등)

- 입양아동의 안정적 정착 및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
 - 기존의 입양부모 위주의 법정교육 외 입양청소년을 위한 발달 및 적응 지원
 -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균형있는 성장 지원
- * (민법상) 입양부모교육, (특례법상) 입양부모교육

혁신 전 / 적극행정 전 / 협업 전 (Before)	혁신 후 / 적극행정 후 / 협업 후 (After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양아동 학대로 부정적 인식 발생 ■ 입양가족 대상 활동사업 전무 ■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 제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양 이후 양육에 대한 관심 증가 ■ 입양가족 대상 사업 신설[신규] ■ 온라인 가족캠프 운영(만족도 4.6)

□ 추진 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

-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 부족(낙인효과)
 - 입양가정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수혜자 발굴 및 확대 제한
-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부족

□ 성과 확대방안

-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포함한 입양가정 대상 가족활동 지원 예정
 - 경계선 지능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신규 가족사업 모델 개발·운영
- * 입양가정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다수로 관련 활동 요청(고객 니즈 수렴)